

4» 소프트웨어 단과대학 설립, 눈가리고 아웅?



6» 빅문 일부 개선 ... 여전히 남은 문제도

PROBLEM	SOLUTION
평가방식	통일된 강의지표, 구글드라이브 활용 업로드
팀타칭	강의진행방식 보완, 강의평가 문제 여전
출결방식	U-Class, 구글 설문 거쳐 결국 호형식으로

8» 국제캠 청소노동자 간접고용의 폐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가 임상교수인건비를 학교 운영비로 속였으며 법인이 제대로 학교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13일 청운관 앞에서 경희법인에게 학교운영비 160억을 지급하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이수형 기자)

“병원 돈을 왜 법인 통해서 주냐” 총학, 160억 다시 달라며 법인 ‘비난’

법인전입금 스캔들, 사실은?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학교가 회계감사에서 160억 위반금액을 적발당했다’고 전하며 ‘경희학원이 학교에 160억 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비난했다. 학교를 떠들썩하게 한 이 내용은 사람대행인이 법적으로 해당 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들의 월급을 주게 돼 있는데, 경희의료원이 학교에 직접 이 돈을 전달하지 않고 법인에 전달한 후, 법인이 학교에 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총학은 이를 ‘불필요하게 법인을 거쳐 *부속병원전입금을 학교에 준 것은 법인전입금을 부풀리려는 술

수’라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비리’, ‘(160억 원을)해먹었다’, ‘불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키웠다. 동시에 경희학원이 학교예산의 단 0.2%인 10억 원만을 책임지고 있다며 법인전입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이 제기한 이 ‘회계비리 스캔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총학이 ‘경희학원이 160억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면 교양강의 6,400개를 열 수 있었다’며 ‘160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상 실책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상 이동을 ‘편법지출’로 표현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160억, 정확히는 161억을 의료원으로부터 학교에 전달한 경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인이 이 돈만큼의 지원을 더 해

줘야만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160억 원의 위법성과 횡령가능성

다만, 총학이 문제제기 한 160억의 움직임은 사실이다. 경희학원은 의과대학 임상교수 월급의 절반을 법인회계를 거쳐 학교회계에 전입시켜왔다. 이는 교육부의 회계처리 지침과 다른 것이 맞으며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회계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지난해 경희학원이 학교에 준 전입금은 173억이고, 이 중 경희의료원이 경희학원에 준 전입금은 161억 원이다. 법인이 법외기부금로 줘야하는 돈이 아닌데도 학교에 지원한 *경상비전입금은 12억 원 정도다. ‘왜 임상교원 월급 절반이 법인을 거치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경희학원 측은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라고 답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회계감사를 진행한 대주 회계법인 측은 “회계비리라곤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회계를 간접하게 하라는 권고일 뿐, 160억 원에 관한 지적사항은 전입금 부풀리거나 비리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희학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부속병원전입금 322억 원 중 절반을 법인을 통해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적사항은 회계를 간접하게 하라는 지시일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전했다. 또한 “이미 해당 지적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사다리 배차 서비스 개발
김인수(유전공학 2011) 대표



창업현장 실습이 가져다 준 사다리차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 이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옮길 때 사다리차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7월, 사다리차 배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 ‘사다리룩’이 등장했다. 사다리룩 개발자 김인수(유전공학 2011) 대표와 한석우(건축학 2011) 학생, 안현주(우주과학 2016) 학생을 만났다.

창업, 많은 대학생들이 꿈꾸는 일이다. “제가 만든 서비스가 유통되는 것,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창업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김인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선택한 사다리차 아르바이트 경험이 사다리룩 개발의 시작점이 됐다. “알바를 하면서 사다리차 시장이 너무 열악한 것을 느꼈다”는 김 대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업 캠프와 창업 관련 수업을 들은 뒤 창업에 매력을 느낀 김 대표는 본격적으로 사다리차 배차 서비스를 고안했다.

지난 학기 초, 김 대표 혼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서를 짰다. 일이 진행될수록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 대표는 안현주 씨와 임수현(산업디자인학 2013) 씨를 불렀다. 서비스의 이름을 ‘사다리룩’으로 결정하고, 사업 기획서를 ‘SK 청년비상프로그램’에 내밀었다. 총 50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당당히 최종평가에 들어 총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팀을 나간 임 씨의 자리를 한 씨가 대신하게 되고 지난 7월, 사다리룩 앱을 정식으로 시장에 내놨다.

한 씨는 “아, 난 창업이나 해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는 창업을 말리고 싶다”며 “창업은 준비되어 있어야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다리룩의 원활한 창업은 그들의 많은 노력에 우리학교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김 대표는 “학교에 창업 관련 지원이 매우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대표적인 것이 창업 현장 실습 제도였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2015년부터 창업 현장 실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개인 혹은 단체로 창업 기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심사 통과하면 지식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에 관한 교육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창업 보고서까지 통과되면 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창업에 성공하면 창업보육 센터에서 사무실을 제공한다. 그리고 김 대표는 심사에 통과해 15학점을 취득한 첫 사례다.

김 대표는 지금의 사다리룩을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창업 현장 실습 제도라고 말한다. 이 제도가 없었으면 창업이란 일을 일찍이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금으로 창업의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 학교 창업 교육의 결과가 외부 공모전과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 대표는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많은 창업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또한 김 대표는 “제가 창업 현장 실습의 첫 사례이니 만큼 힘든 점이 많았지만 저희의 창업이 좋은 선례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김인수 대표와 한석우 학생, 안현주 학생 그리고 사다리룩의 앞날을 응원한다.

학사 규정 개정으로 수업일수의 절반까지 출석 인정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우리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규정이 지난 1일 개정됐다. 기존에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유 즉, ‘공결 사유’로 인해 해당 학생이 출석을 못한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2 기간 내에서 출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결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수업일수의 2분의 1로 축소 제한됐다.

단,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출석인정일수의 제한에서 제외되며, 교

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취업자와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에 대한 근거 또한 추가 됐다. 각각 12조 1항 7호와 8호를 추가하여 ‘졸업예정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와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를 출석인정 사유로 명시했다. 그간 별도의 시행 세칙이 제정돼 운영돼 오던 것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항으로 이전된 것이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에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공결 사유더라도 수업에 절반 이상

을 결석했는데 성적인정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공결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일수를 포함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 학사지원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사유가 추가된 데에 학사지원과 측은 “교육부에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안내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추가

한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도 휴강 시 학생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휴강 시 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휴강 시 학생에게 미리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학생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학점취득방법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도 학점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 됐다. 마지막으로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 정정을 할 수 없으나, 학생의 과실이 아닌 경우 부총장의 허가가 있을 시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 7면



시선

사설

무엇을 위한 SW융합 교육인가

우리학교는 지난 3월, 6.3대 1 경쟁률을 뚫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최장 6년 동안 최대 1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학교는 사업을 통해 ‘미래산업을 주도할 V자형 융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사업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도와 우리학교의 목표는 옳다. ‘4차 산업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은 둘째 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분명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산업을 주도한다는 우리학교의 준비 태도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내년 1학기 출범을 앞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시작부터 반쪽이다. 전자정보대학 소속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분리해 만드는 신설 단과대는 당장 전정대학·응용과학대학관과 공간, 행정 조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미 80%에 육박하던 전정대학·응용과학대학관의 공간 부족 문제가 가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새로운 교육에 불가결한 행정적 지원 역시 기존 전자정보대학과 다를 바 없다.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기업만 쳐다보고 있던 산학협력관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무산됐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행할 주체인 전임교원이 단 두 명뿐인 상황이다. 빈자리는 다 학과 교수들의 겸임으로 채워진다.

비전공학생의 SW활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내걸고 내년부터 도입될 ‘SW 기초교양’ 역시 그 기형적인 형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교생이 들어야 하는 기초교양의 취지에 부합할 만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후마니타스칼리지 배분 이수교과 과목 중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는 과목들을 SW 기초교양으로 지정하고 이를 이수케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 학교는 장밋빛 계획안으로 사업을 떠났다. 사업 선정의 결과로 지원금도 받았다. 이를 성과로 대내외에 공표했다.

그렇다면 학교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사업의 목표와 지원금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정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고작 실습실 기자재 몇 대 뿐이라면 사업 관련자들에게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고사양의 기자재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SW활용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신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새로운 교육단위로서 신입생을 맞이할 것이다. 이미 수시모집도 마감됐다. 타 전공 2018학번 신입생들 역시 SW 기초교양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 것이다. 2017학번까지가 수강했던 것과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기존 배분이수 강의를 말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현재의 모습만을 미뤄보면 본말이 전도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떠오른다. 다시 한 번 사업 준비 상황에 대한 진지한 재고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Peace BAR Festival 개최
촛불의 의미 돌아본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7. 9. 4 ~ 9. 17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폐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어제까지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었는데 오늘 폐강 문자를 받았다’는 글(#경희숲_24165, 2017.9.8)의 글쓴이는 ‘정정기간 다음날 폐강 통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반 친구는 아예 폐강 문자조차 못 받았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에게 무관심하고 계절학기를 들으라는 행정실의 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 글은 281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계절 학기는 누구 집 개 이름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장학



이 주의 주제 - 합리적 폐강기준 마련해야

그들만이 사는 세상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강을 원하는 전공강의보다 ‘열릴 가능성이 있는’ 전공강의를 찾는다. 정작 원하던 강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곧잘 폐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수강신청 기간과 정정 기간, 두 번에 걸쳐 시간표를 짜야 한다. 그렇게 두 번이나 시간표를 짜고 나면 그들이 정말 원하던 강의는 공지사항 폐강공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 전공선택 과목은 선택이 아니다.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 열릴만한 강의를 찾아 보면 선택은 어느덧 부담스러운 필수과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는 170명이 넘는 정원을 가진 큰 학과도 있지만, 정원이 그 4분의 1도 되지 않는 학과도 있다. 정원이 소수인 과, 그런 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많지 않으니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는 점이다.

취재 도중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 학과를 사랑했다. 기자가 하나를 물으면 둘을 알려줬고 더 궁금한 것은 없는지, 더 알려주기 위해 먼저 다가왔다.

학과의 어려움을 들려달란 기자의 요청에 A4 3장은 족히 되는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자신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의 미래까지 걱정했다. 2014년도에 개정된 우리 학교의 전공과목 개설기준은 한 강의 당 최소 1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달하는 강의는 학칙에 따라 폐강된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학과는 한 학년 정원이 고작 30명 남짓이다. 강의가 원하는 만큼 열릴 수 없는 구조다. 매 학기 폐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행정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강의 개설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정원이 소수인 학과에 대한 전공과목 개설기준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들 역시 타 전공 학생들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타 전공 학생들보다 전공 선택권이 현저히 낮다. 학교 측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정’이니 까 일반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규정’이니 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학기도 수강신청이 끝났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앓아야 했고 폐강 공고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행정실은 전화를 돌려가며 폐강을 막아야 했고 휴학생은 남겨진 동기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신청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수는 “예외 없는 규정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제는 소외된 그들의 어려움을 다시 조망할 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년을 짓밟다

세시봉

양윤주 (서울캠퍼스 뉴스팀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들도 줄줄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CJ그룹은 하반기 채용 인원의 약 20%를 학교나 학점 정보를 제외하고 뽑았다. 카카오 또한 블라인드 공채로 신입 개발자를 선발했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택했다.

직무 수행과 크게 상관없는 학벌, 나이, 연고 등을 빼고 개인 역량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취준생의 82.2%가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정보를 채워 넣어야 했던 이력서를 뒤로하고 공정한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커져가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전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그 기대를 한 순간에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가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493명, 무려 95%가 국회의원의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입사한 것이다. 경약을 금지 못할 수치다. 이 기간 동안 강원랜드 인사담당자는 하루에 200통도 넘는 청탁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낯고 긴다는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절절한 부탁을 하니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들은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여건을 조작하고, 채용절차 도중 전형방법을 바꾸고, 점수를 조작했다. 그래도 안 되면 합격자 수를 늘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정 기한다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한쪽에선 그들만의 채용

이는 수많은 청년들의 땀방울을 비웃는 비극이다. 더불어 채용비리의 처벌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 비극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취준생들에게는 공정성을 강조하며 개인 인적 사안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블라인드’를 쳐 두고 ‘수저’로 다른 모습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매년 최악을 갱신하는 청년 실업률 통계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절박하게 살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고 꾸미며 충실한 부품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취준생 중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을까.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다. 노력하라는 말을 듣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노력하지 않은 자의 승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가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은 그 길에 필요한 재료일지 모른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아무 배경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제2의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탄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모든 청년이 정의로운 결과를 받아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혜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7(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



서울캠퍼스 곳곳에 ‘160억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총학생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수형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경희학원의 경우 문제가 된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두지 않는 회계법인도 많았다. 동국대 등 우리학교처럼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을 통해 전달하는 대학이 술하지만 서울권 대학 중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정을 권고 받은 사학재단은 경희학원 뿐이다.

161억 원의 이동은 순간에 이뤄진 회계 상의 움직임일 뿐이라 경희학원이 161억 원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누군가 ‘해먹었을’ 것이라는 총학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인의 배임으로 볼 수 있는가

경희학원은 ‘무책임한’, ‘불법’ 재단이라고 낙인찍힌 것에 억울하다고 말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이 70억 원 적자를 낸 것도 법인수입보다 학교지원 규모가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년째 수십억 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학원은 지난해 정확히 71억 원의 적자를 봤다. 부족한 법인전입금 문제는 경희학원이 배임을 저질렀다기 보단, 경희학원의 수익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경희학원의 전입금지원은 분명 감소세다. 경희학원이 지난 15일 양 캠퍼스 총학과 우리신문에 제공한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부속병원전입금을 제외한 경상비전입금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경상비전입금은 2007~9년 40억 원 내외, 2011~15년 20억 원 내외를 전전하다 지난해에는 12억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경희학원은 2016학년도 기준, 법정부담전입금 152억 중 95억만을 학

교에 지원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비전입금과 달리 법인이 대학에 지원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희학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부담전입금의 62.5%만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은 교직원의 연금 등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학교법인 재정상황에 따라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 기준 전국 153개 사립대학 중 22.9%인 35개 대학만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법정부담전입금을 위법행위로 볼 순 없지만, 법인의 대학지원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회사 수입을 포함한 경희학원의 운영수입은 2016학년도 기준 247억 원에 그친다. 법인 입장에서 수입으로 계산된, 논란 속의 부속병원전입금 161억 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사실상 수입이 아

닌 이 돈을 빼면 86억 원이 법인 수입의 전부인데, 법정부담전입금 104억 원과 법인 운영비용 등을 빼면, 위 경희학원 관계자의 발언대로 지난해 경희학원은 71억 원의 적자를 봤다.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수익대비 대학에 전출한 돈이 259억 원 많다.

“회계비리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 없다”

결론적으로 경희학원은 총학이 주장하는 160억을 지원할 강력한 의무가 없으며 법정부담전출금도 채 부담하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그럴 형편도 안 된다. 경희학원은 지난 15일 ‘부속병원전입금 개념이 없던 과거부터 경희학원은 부속병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대학으로 보내왔다’, ‘십 년째 수익보다 많은 전출금을 대학으로 보내고 있다’, ‘전출금 확대를 위해 수익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양 캠퍼스 총학과 대학주보에 발송했다.

법인의 답변서를 받은 총학은 현재 “회계비리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 없다”며 “160억 원을 법인이 주는 것처럼 속인 것에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은 “아직 정작 총장님께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총장이 경희학원의 실소유주이니 총장이 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부속병원전입금 : 같은 학교법인에 부속된 병원이 학교에 제공하는 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학교법인이 학교에 자의로 주는 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전입금

2017-2학기 경희꿈도전장학금 신청 안내

-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사회진출분야 탐색, 진로설정 등 심도있는 자아성찰 계기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성장능력계능력 함양
 - 교수-학생 간 실질적지도 계기마련
 - 지원대상**: 2017-2학기 현재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금정 위배자, 2017-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계공관 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가능
 - 도전분야**: ①창업 / ②봉사 / ③탐방 / ④연구 / ⑤기타
 -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함
 - 선발인원**: 50명/팀 내외
 -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경희 꿈 도전장학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평가 실시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 선발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경희꿈도전장학 평가항목]
- | 구 분 | 평가항목 |
|-------------|--|
| 서류평가 (100점) | 활동계획서 평가(9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꿈과 목표의 연계성(25점)계획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실현가능성(25점)지도교수와의 지도/자문 연계성(25점)장학금 사용계획의 적합성(15점) |
| | 교수추천서 평가(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생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30점)계획의 준비도 및 추진의지(30점)실행결과와 활용방안 (30점)사회기여도(20점) |
| 면접평가 (100점) | |
- 장학금 지급액**: 1인/팀당 400만원
 - 장학생 선발시 300만원 선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7. 9. 18.(월) 09:00 ~ 2017. 10. 13.(금) 17:00 [3주간]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 1) 온라인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2017-2학기 경희꿈도전장학금
 - 2) 서류제출
 - 가) 제출기간: 2017. 10. (화) 09:00 ~ 2017. 10. 13.(금) 17:00
 - 나)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다) 제출서류
 - (1)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 1부
 - (2)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 참조) 1부
 - * 활동계획서는 동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로도 제출해야함
 - (3) 경희꿈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 2 참조) 1부
- 선발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장학금 신청	2017.9.18.(월) 09:00 ~ 2017.10.13.(금) 17:00	
2) 장학심의회	2017.9.19.(화) 18:00, 청운관 409호	
3) 서류제출기간	2017.10.10.(화) 09:00 ~ 2017.10.13.(금) 17:00	
4) 면접평가일	2017.10.25.(수)	시간 및 장소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5) 선발결과 발표	2017.10.30.(월) 10:00	장학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6) 1차 장학금 지급	2017.11.10.(금)	
- 장학생 의무사항**
 - 가.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나. 최종 결과발표회 참석 * 우수 결과를 제출하는 별도 시상 예정
 - 다. 도전기간 종료 후 장학생 간담회 참석 및 장학수기 작성
- 내 용 일 정 비 고**

내 용	일 정	비 고
꿈도전 기간	2017. 11월 ~ 2018. 7월	
중간보고서 제출일	2018. 3. 30.(금) 24:00	janghak1@khu.ac.kr로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일	2018. 7. 27.(금) 24:00	janghak1@khu.ac.kr로 제출
결과발표회	2018년 8월중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유의사항**
 - 가. 꿈도전 기간 중(2017-2학기, 2018-1학기)에는 재학생태를 유지해야 함
 -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할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을 반납해야함
 - * 단, 복학하는 학기에 중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발표회에 참석하여 최종 평가를 통과 하는 경우에 한해 장학금을 재지급함
- 기타문의**: 장학팀 961-0045~0046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획일적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 ‘진통’

신정인 기자 sji0201@khu.ac.kr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9개의 폐강강좌 공고문이 게시됐다. 우리 학교는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폐강기준을 적용해 전공과목은 15명 미만(전공과목 중 전제영어 진행강의는 10명 미만), 교양 및 기타 과목은 신청자가 20명 미만이면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다. 이전에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수강 가능했던 전공과목 개설기준과 비교했을 때 5명의 수강자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상향된 폐강 기준은 소수학과에 특히 치명적이다. 한 학년 당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과의 경우 매 학기 폐강위기에 놓인 강좌들을 개설하기 위해 학과 행정실별로 다양한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등록 후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강위기에 처한 강의의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방법이다. 휴학 예정인 학생이 등록금을 내면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 출석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결국, 수강정정 기간 동안 출석부상에는 이름이 올라가지만, 실제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보통 학과 차원에서 휴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생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학기 휴학을 결정한 A 씨는 “9월 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학과 행정실이었다”며, “특정 수업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고학년 학생대수업 수강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신입생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들이 폐강위기 과목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3학년과목을 수강하는 식이다. 비슷한 경험에 있는 B 씨는 “학과 커리큘럼 상 선수강과목이 있음에도 폐강을 면하기 위해 후수강 과목을 먼저 수강했던 적이 있다”라며, “수업내용이 어려워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성적취득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한 커리큘럼의 붕괴는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미 1학년 때 고

학년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3, 4학년이 되면 다시 해당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져 수강하려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다시 저학년 학생들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본인 학년의 강의가 폐강위기에 있으면 자신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술해 학과에 제출하는 방법도 폐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학생들은 ‘수강 불가 사유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한다. 이는 이미 폐강이 예상되는 강의이지만 자신은 왜 해당 강의를 신청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각자의 상황을 서술한 사유서다. 이것이 제출되면 학과 행정실 차원에서 이를 취합하여 강의 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학사지원과에 보내는 식으로 폐강을 막는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과는 “폐강대상강좌이지만 졸업대상자가 있거나 학과 사정에 의해 강의를 폐강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음악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인한 강의의 폐강이 잦은 것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인 C 씨는 “학과 사정에 맞지 않는 폐강기준 때문에 학생들과 학과 행정실 모두 소모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며, “듣고 싶은 강의가 없어 질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사유서 작성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학과를 꾸려가고 있는 음악대학 박준영(작곡과) 교수는 “전공강의 폐강기준이 10명 미만이었었던 2014년 이전에는 그래도 강의를 개설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매년 입학정원이 1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 입대, 휴학 등으로 학생 수가 더 줄어 강의 운영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의 특성상 소수정예강좌가 많이 필요한데 15명을 채워 강의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학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강의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상황에 맞는 강의 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2017년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안내

- 훈련대상**: 2017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 장소**: 금곡예비군훈련대
- 일정**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소속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9. 28(목)	1~3시간 대상자	소속 구분 없음
	10. 13(금)	4~8시간 대상자	문과대학,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11. 3(금)	4~8시간 대상자	교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간호과학대학, 경영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 이동방법**
 - 가. 단체이동
 - 1) 이동수단: 45인승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 2) 출발장소 / 시간: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 50분 출발
 - 나. 개별이동
 -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 2) 전철: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 참고 및 유의사항**
 -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등)불량자 훈련인소 불가
 -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마.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 바.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법적처분에 유의
 - 사. 공결처리를 위한 훈련참가 확인서는 훈련종료 후 다음 근무일부터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시 발급함
 - 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 자.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 차.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번호로 반드시 수정
 - 카.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빅문 일부 개선 ... 여전히 남은 문제도

빅문 짚어보기 후속보도

양윤주 기자 diddbswna@kh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우리신문은 지난학기 총 5회에 걸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 기획을 통해 빅문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살펴봤다. 2학기를 맞아 이번학기 빅문의 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대비 이번 학기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강의자료 통일’, ‘강의 간 연결고리 확보’, ‘호명식 출결’, ‘외국인 전용강의 개설’ 등이다. 이들 변경사항은 지난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에서 제시한 큰 3가지 문제점인 ‘팀티칭’, ‘평가방식’, ‘과도한 수강인원’의 보완책으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교재 미비’와 ‘온라인 강의 제작 연기’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통일된 강의자료

평가문제 일부 해결

‘특정계열에 유리한 평가방식’은 우리신문이 지난 학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체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바 있다. 팀티칭으로 인해 수업 별로 통일된 내용을 배운다는 느낌이 희박한데 비해 학생들이 속한 수업과 상관없이 학년별로 시험 장소를 재배정받아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데서 오는 문제였다. 이번 학기 빅문의 시험방식은 ‘외국인 전용강의’를 제외하면 지난 학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통일된 강의자료를 배부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빅문 교수들은 이전 학기까지 강의 자료를 KLAS를 통해 배포했다. 이 때 강의한 자료와 KLAS에 업로드된 자료가 달라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심지어 각 수업마다 다른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에 배우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더불어 제각기 다른 강의자료에 시험범위 조차도 확



싣지 않았다.

이번 학기부터 빅문의 모든 강의 자료는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시간에 드라이브 링크를 전달받는다. 빅문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KLAS는 각 담당 교수 1명만 업로드가 가능해 교수도, 학생도 힘들었다”며 “통일된 하나의 폴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팀티칭’ 역시 학생들이 꼽은 문제였다. 빅문 교수진들은 “빅문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과학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강의별 연결고리 부재와 강의평가 시 팀티칭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교수, 학생 양측 모두의 불만을 자아냈다.

이번학기 빅문은 강의 진행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이 점을 보완했다. 권영균 교수는 “강의 순서를 조정해 물리를 앞쪽으로 한꺼번에 배치해 교수가 바뀌는 것

을 최소화했다”며 “각 분야 교수님들이 이전 수업 때 다뤘던 분야를 다시 짚어주고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의평가 문제 여전

출석은 결국 호명으로

강의평가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교무처 측은 “강의평가를 교수 개개인에 주려면 의학계열 학생들의 경우 한 과목에 10명이 넘는 교수들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양측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빅문 PD 공우석(지리학과) 교수는 “강의평가는 승진이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교수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며 “팀티칭임에도 하나의 강의로 평가되다 보니 교수 개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김나래(언론정보학 2016) 씨는 “가르친 교수에 대한 의견이 해당 교수에게 잘 전달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수업마다 사진을 찍어 조교가 일일이 지정좌석과 대조하던 ‘출결방식’은 표류 끝에 결국 ‘호명식’으로 바뀌었다. 빅문PD 공우석 교수는 “처음부터 호명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니지만 80명을 호명하는 10분, 15분이 아까워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며 “결국 별다른 수단이 없어 이번 학기부터 호명으로 출결을 체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빅문을 수강 중인 김동현(사회학 2016) 씨는 “빅문을 포함해 다른 대형강의도 많은데 학교에서 효율적인 출결방식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학습권 침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유학생전용강의’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른 중핵과목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 전용강좌가 없던 빅문은 유학생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켈리(무역학과 2016) 씨는 “친구들로부터 빅문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를 한국어로

듣고, 한국인들과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수강신청 자체도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권영균 교수는 “이번에 열린 외국인유학생전용강의는 한 명의 교수가 한 수업을 진행한다”며 “난이도도 조금 더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를 수강 중인 유태호(경영학 2016) 씨는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해하기 편하다”며 “외국인유학생전용강의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재 제작·온라인 강의는

제자리 걸음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교재 제작’과 ‘온라인 강의 제작’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양 캠퍼스 모두 사용할 동일한 주교재를 만드는 일은 1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될 ‘부교재’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강의자료와 강의를 녹취, 정리해 만든 ‘부교재’는 참고도서 겸 수업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공우석 교수는 “주교재의 경우 기존 중핵 교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준 학장은 “교재 제작에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빅문 참여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 제작은 마비상태다. 당초 빅문 온라인 강의는 대외적으로 우리학교를 빛낼만한 ‘명품강의’가 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는 물거품이나 마찬가지다. 교수학습지원처와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기로 했으나 이번 학기에는 시행 계획이 없다. 교수학습지원처와 제작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빅문 교수진이 요구했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중국어 자막이 지원되는 온라인 강의’의 개설은 힘들어 보인다. 교수학습지원처 유승현 계장은 “한국어로 자막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청구된다”며 “다 만들어진 강의에 자막을 얹혀 다시 만드는 비용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빅문 PD 공우석 교수는 “아직 온라인 강의를 외국인에게만 제공할지 내국인에게도 제공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2학기 취·창업스쿨 안내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업체 현직에 종사하거나 채용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교수 및 강사로 초청하여 16주과정의 정규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설 목적

- 전공 외에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재상과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
- 원하는 기업과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교수나 강사로 초빙하여 학기동안 집중적으로 채용관련 직무와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

● 운영

- 교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며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P, N로 기록하되 최초로 취득한 2학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이후 수강 강좌는 0학점으로 표기한다)
- 2017-2학기부터 취업스쿨을 취·창업스쿨로 과목명 변경하여 운영

● 취·창업스쿨 좋은 점

- 내가 원하는 취업분야에 대한 전체 준비과정을 한 학기동안 배우고 실습한다.
- 따로 외부 컨설팅을 받거나 전문가관에 수강료를 내고 코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관련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직무분석에서 자기소개서작성, 면접요령까지 풀코스로 코치해 준다.
- 전공분야 취업은 물론 비전공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한 입사방법을 알 수 있다.
- 취·창업스쿨은 학년 구별 없이 수강 가능하나 1-2학년 때 1회, 3-4학년 때 1회 수강하면 스스로 취업준비를 끝내는 셈이다. 졸업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수강 기회를 갖는다.

● 2017-2학기 취·창업스쿨 강좌 현황

과목	교수	주요내용
취·창업스쿨 (공학분야)	임상진 (에이피씨대표) 목 16:30~18:20 최영범(엔텔스 대표) 화 13:30~15:20	-공학계열 분야의 직무분석과 필요역량 이해 -공학계열 분야 기업별 채용기준과 핵심역량 분석 -기업별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준비방법 및 면접(P.T, 토론, 인성) -그룹 면접 코칭을 통한 피드백 -해당분야 취업을 위한 전략수립
취·창업스쿨 (전자정보분야)	박종현 (에이피씨팀장) 금 10:00~11:50	-전자정보산업의 다양한 직무의 이해를 통한 올바른 진로설계 -효과적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전략, 준비사항을 습득 -성공적인 멘토(동문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취업 정보활용법, 산업(기업) 및 목표 직무 분석
취·창업스쿨 (응용과학분야)	김인수 (TTS카리어그룹 대표) 월 12:00~1:30	-현대 사회의 인재상과 핵심 요구역량 이해 -취업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취업전략 -성공적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자기소개서, 면접, Special Activities 등) -멘토링을 통한 취업진보체계 구축 -응용과학분야 전문가 특강
취·창업스쿨 (인생/재업/화장품분야)	유재호 (PLSA인생상담 대표) 월 09:00~10:50	-생명/재업/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우수 기업 Review -각 산업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필요 역량 준비방법 -그룹 진로코칭 및 자기소개서 작성 -NCS기반 해당 산업 입사를 위한 취업전략 수립 -해당분야 전문가 초청특강
취·창업스쿨 (외국계분야)	조창현 (AMROP코리아 전무) 금 10:00~11:50	-외국계 기업 Snapshot(외국계 기업 특성 이해 및 세부 탐색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외국계 기업 입사준비(영문자기소개서, 영문이력서 작성및 가이드, 인터뷰 전략 수립, 모의면접) -외국계 기업 진·현직 인사 초청특강
취·창업스쿨 (예술분야)	윤의향 (보성컬러주예술타인팅활성사업) 목 14:00~15:50	-예술분야(공예창작, 공연 등) 취업분야 소개 및 직무에 대한 이해 -해당 전문분야에 취업을 위한 준비 -채용기준과 핵심역량을 통한 취업 분석 -자기소개서 준비방법 및 면접 P.T, 토론, 인성에 대한 이해
취·창업스쿨 (멘토링과 함께 하는 커리어컨설팅)	김인수 (TTS카리어그룹 대표) 월 10:00~11:50	-자기분석(신리형분석, 역량분석) -취업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목표설정 -개인 맞춤형 커리어컨설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개인별 취업전략 수립 -동문 멘토링과 Network 수립
취·창업스쿨 (취업실전)	류정은 (마이크로세터이알렘 대표) 금 10:00~11:50	-경력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자기이해, 정보수집, 계획수립의 단계별 수업 -이력서작성, 면접 전략, 작업 기초 역량 개발 방법 -평생 경력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에 중점 -외무 인사 초청특강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과목	교수	주요내용
취·창업스쿨 (자기개발과 취업전략)	고영재 (마이크로세터이알렘 대표) 금 12:00~1:30	-자기이해(Self-awareness): 가치관, 성격, 흥미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취업의 과정에서 활동하는 원리와 방법 -기업이 이해(Company): 채용원리, 직무와 역량의 이해 -취업전략-총괄적인 정보수집, Self-Marketing(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법), 면접전략, KPI면접, NCS기 이해 -공통역량개발
취·창업스쿨 (스프린트 마케팅분야)	이해원 (99에스텔 대표) 월 16:00~17:50	-스프린트 마케팅분야의 직무분석과 필요역량 이해 -인사를 위해 각 회사별 채용기준 및 채용기준 -진로목표설정, 커리어로드맵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전문가 특강
취·창업스쿨 (공기업/공무원/고시분야)	김성환 (공기업/공무원/고시분야) 화 14:00~15:50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공직분야 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소개 및 인격, 정신 배양
취·창업스쿨 (시사이슈 101: 100분토론)	조우일 (취업진로지원처 객원 교수) 수 11:00~12:50	-지난 한 주 간의 시사이슈를 주제로, 100분 동안 자유로운 토의/발표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 (총이슈토론 - 경제이슈 또는 종합이슈)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면접전형에 대비하는 과정
취·창업스쿨 (취업가독서특강센터 대표)	김이준 (취업가독서특강센터 대표) 수 09:00~10:50	-취업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필수단계 -실용심성으로 구성 -신인, 기업, 직무 3가지 분석을 통해 기업과 직무 이해 -진로목표설정, 커리어로드맵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창업스쿨 (신로정보탐색과 진로준비)	백지연 (한국미디어테라피 연구소 소장) 목 14:00~15:50	대상: 직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우왕좌왕이대네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줘서~책
취·창업스쿨 (진로특강강좌)	전유정 (광교인문신리상담센터 소장) 화 12:00~1:30	대상: 나는 누구일까? 나를 잘모르겠다... 어떤 일이 나와 가장 잘 맞을까?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나의 생활을 가장 긍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직업은 이거 아니냐 ·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어디가냐
취·창업스쿨 (자아탐색을 통한 진로설정)	김연희 (광교인문신리상담센터 전문상담사) 목 12:00~1:30	대상: 과연 나의 선택이 맞을까... 진로결정을 잘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이해~이러한 이유들로 의사결정이 어려웠구나! · 어떻게 진로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취·창업스쿨 (진로의사결정을 통한 목표설정)	이정아 (대구북이동청소년 상담센터) 월 14:00~15:50	대상: 과연 나의 선택이 맞을까... 진로결정을 잘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이해~이러한 이유들로 의사결정이 어려웠구나! · 어떻게 진로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보도

“혁신적 변화보다는 학생요구 수렴에 방점”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신입 학장에 김성수 교수가 임명됐다. (사진 = 최명규 기자)

후마 신입 학장 인터뷰 - ② 국제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학장에 김성수(우주과학)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이상과 현실을 고려해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학생들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교양 교육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학장은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와 학교 간 갈등에 대해서 서울캠퍼스 후마 이영준 학장과 비슷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학장은 “결국 학교와 교수회의의 모두 교육의 질 향상을 바라는 것은 똑같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후마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학장은 “후마는 아시아 10대 교양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양대학이다”라며 “혁신적인 변화, 제도약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요구와 불편을 받아들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배분과목의 개설, 강좌 수 증설 같이 세세한 부분에서의 개선은 있었지만 거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부 계열에서 제기하는 ‘교양 이수 학점이 높아 전공 역량이 약화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학장은 “후마 이수 학점은 외국대학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고 국내의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전공 교

수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 전공과 교양 이수 학점의 비율은 지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학장은 이공계열의 교양 과목을 늘리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학장은 “인문계열에 교양 과목이 치중돼 있다는 의견을 받아 들어 ‘박벤에서 문명까지’가 탄생했듯이 교양이 인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문과목과 이공과목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내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라 밝혔다.

특히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 교양으로 지정될 SW기초과목에 대해 김 학장은 “교양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후마 출범 당시에는 인문학 교육에 중점을 뒀지만 소프트웨어 지식이 필수적인 지식이 됐다면 이를 교양이라 여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W기초과목 신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교수와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김 학장은 “교양 과목 2개가 새로 개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학장은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양 과목을 재미있게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 자신을 위해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발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후마의 중핵 교과들을 통해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를 넘는 장기연체 ... 전공도서 씨가 마른다

안나연 기자 yeonnaahn@khu.ac.krkr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장기연체된 도서는 203권에 달한다. 연체된 도서들의 반납률은 지난 4월에는 19.2%, 5월에는 21.2%, 6월에는 20.3%, 7월에는 22.2%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반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가장 많이 연체된 <경영학 원론>은 경영학과 전공 도서로 463일 동안 연체되었다. 그 뒤를 이은 <스쿠트 팬츠>, <<어패럴메이킹>여성복 재킷> 역시 의상학과 전공도서다. 각각 330일 동안 연체되었다. 물론 모든 장기연체 도서가 전공도서인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가장 오래동안 연체된 책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로 순수 문학 도서였다. 그러나 3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가장 많이 연체된 도서가 전공도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의학도서관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연체된 책은 <생약학>으로, 약과학과 전공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서적이 대학생들의 용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연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주천(무

역학 2017) 씨는 “전공책을 다 사니 12만원이 넘는다. 이는 이틀치 아르바이트 일당에 해당한다”며 부담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물론 책에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달치 휴대폰 비용을 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새책이 되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보연(간호학 2017)씨 역시 “전공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야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며 “필수로 구매하는 서적인 만큼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기영(문헌정보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양심적인 대출을 호소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도서관 규정을 통해 비양심적인 장기 연체를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지정도서’ 제도를 언급하며 “전공 도서를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됨과 동시에 장기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도서제는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의 요청에 의해 정해놓으면 3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만 대출 가능하며 연체 시 시간당 백원의 높은 연체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연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지정도서 제도를 도입했다. 연세대에서 현재 지정도서로 등록된 책은 415권이다. 연세대 이용자통합서비스팀은 “도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 경우 모든 연체도서에 대해 연체일과 같은 기간만큼 대출과 열람실 및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30일 동안 연체한 경우, 책 반납 이후에도 30일 간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장기연체를 해도 30일이 ‘최장 도서관 이용 정지 기간’인데다 연체료가 2만원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아 전공도서에 대한 장기연체가 빈번하다. 물론 도서관 측에서는 문자 및 전화로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는 재학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홍유진 직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학생 개개인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다. 홍 직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기연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W교양 ‘조심스레’ 전교생 필수이수 추진

(2018 학년 이후)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SW중심대학사업단)은 내년 신입생부터 전공에 상관없이 ‘SW기초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W기초교육으로 내년 신입생은 SW기초교과 6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SW기초 교육은 기존 배분이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들과 추가로 개설되는 2~3개의 배분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SW기초교과 필수이수에 따라 2018학번 이후부터는 배분영역 선택에서 추가 고려 사항이 생긴다. 현재 배분이수교과는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SW기초교과가 있는 영역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역 선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다.

SW기초교과에는 컴퓨터실습이 있는 SW코딩과 그렇지 않은 SW교양으로 나뉜다. SW코딩과 SW교양 이수 조건은 각 단과대

학별로 정해질 전망이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단장은 “신입생들이 SW코딩과 SW교양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마다 다르다”며 “차후 단과대학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기초과목 개설은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이다. 조 단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전공학생이 본인의 전공과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단장은 SW기초교과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전교생이 들어야 하는 수업인 만큼 연간 5,200명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1학기에 1,559명의 학생이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을 이미 수강했다”며 “서울캠퍼스 2과목, 국제캠 3과목만 추가 개설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SW기초교과에는 소프트웨어 교양 전임교수 서울·국제캠 각각 2명, 산학협력중점교수 4명, 학술연구교수 4명과 컴퓨터공

학 전임교수가 담당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시간강사 채용과 온라인 강의개설로 강의 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W기초교과는 그 대상이 전교생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주된 논의 사안이 될 전망이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9월 말 후마니타스칼리지 요청으로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과정개편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이에 대한 개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김성훈 학술연구교수는 “SW기초교과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 등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는 ‘컴퓨터적 사고와 문제해결’ 2학점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0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3,980명의 학생을 수용했다. 교수 14명이 강의담당했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7.09.11.(월) ~ 10.20.(금)

■ 접수기간 : 2017.08.14.(월) ~ 2017.09.08.(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09.05(화), 09.06(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09.05(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레벨	Ted Talk		Business Special Lecture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Workshop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수강료	150,000원		9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고급1	
	수강료	150,000원		초급1 / 중급1 / 고급2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화, 목) 07:45~08:45	오전반 (월, 수) 07:45~08:45	오후반 17:30~19: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2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오후반 18:00~19: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불법복사, 복스캔 NO!

전전한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응원합니다!

저작물 불법 복제

지식재산을 훔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인 불법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저작권, 우리의 아름다운 학습입니다. 정품 콘텐츠는 <저작권OK>지정업체에서 구매하세요.

☎ 대표 전화 1588-0190
홈페이지 http://www.kcpra.or.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조합연합회

‘핵무장’ 자기방어로 인식하는 북한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칼럼

김민웅
교육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무장체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실은 강력한 대응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만일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로 가는 과정에서 북의 핵무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비합리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말했듯이 “북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 함”이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장 체제 강화의 1차적 본질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을 알면 해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통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러한 방식은 도리어 북의 핵무장의 정당방위적 절실성을 확인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비핵화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핵무장의 문이 열린 것은 그 사이에 평화적 해법에 기대를 걸어도 통하지 않았던 상황이 존재한 결과다. 미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요구했던 것은 북이었고,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 소멸 대상으로 북을 대했던 것은 미국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입증 가능한 ‘사실’이다.

해법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

가령 2000년 클린턴 정부 당시 북의 2인자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잇따른 울브라이트의 방북, 그리고 북미 공동선언은 그간의 꾸준한 대화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수교 직전의 상황을 뜻했다. 하지만 이는 이후 들어선 부시정부에 의해 좌절된다. 수교논의의 대상이었던 북은 그간 미국과 진지하게 서로 오갔던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를 하는 과정은 매우 길 것이다.

(사진=중앙일보DB)

와는 달리, 줄지에 미국에 의해 박멸되어야 할 악의 축이 되고 만다. 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 최강국의 적대적 군사정책 앞에 놓인 국가가 평화적 대화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는 분명하다. 압박에 굴복을 하거나, 이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확보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전자를 원했고, 북은 후자를 택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진 본질은 여기에 있다. 당연히 이는 핵무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도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작계(Operation Plan)”라는 이름의 점령정책과 함께 정권교체와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까지 준비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지침이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비중을 가진 자기방어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핵무장 해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까?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좌절시킨 아들 부시 이후 미국의 핵 태세의 기본 전략은 “핵 선제공격(nuclear pre-emptive strategy)”이며 참수작전은 상대방 지휘부에 대한 핵공격과 지도부 제거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해법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북의 인식과 관점, 태세를 이해하는 작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강력한 압박과 제재라고 할지라도 체제의 생존을 내어주는 방식은 항복하기 이전에는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북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끝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최종 목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쟁보다 나은 평화정책

해법은 확실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쪽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직접 대응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실제적 방향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핵무장과 이에 기초한 전략은 해체되어야 한다. 결국 상호 위협이 될 조건을 함께 소멸시키면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 외에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는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並行)은 중국의 시진핑만의 제안이 아니다. 최종 목적지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다. 동북아시아의 적대구조는 이로써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상대에게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대화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만들기 위한 돌파형 대화도 있다.

평화협정과 북한-미국 수교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평화정책이다.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는 한반도 교차외교의 균형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이런 목표와 의지가 분명할 때 남북대화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 시 북이 제기할 미군철수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남북이 나눈 상대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통해 풀어갈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핵무장 해체는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매우 긴 여정이다. 그러나 전쟁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더군다나,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우리 학교의 평화정신 아닌가?

※외부 필자의 원고는 대학주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

김리나
(언론정보학 2016)



20대는 어디에 누워야 하는가

작년 가을 자취를 결심했다. 통학길 숨 쉴 틈조차 없이 어떻게든 몸을 우겨 넣는 ‘지옥철’을 하루에 2시간씩 타는데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집에서 늦게라도 출발하는 날에는 종일이 불안감으로 범벅되는 경험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랬듯 냉혹했다. 갓 대학에 입학한 20대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리 만무했다. 잠깐 인터넷 검색만 했을 뿐인데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전임신고와 같이 보기만 해도 어려운 용어들이 한 가득 등장했다. 중고등학교 때 ‘볶음밥 당근을 몇 센티미터로 썰어야 하는지’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항목인데 대체 누가 알려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려운 용어들을 어찌 넘어오니 더 큰 진입장벽이 있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줄지만 비싼 월세 때문에 티도 나지 않았다. 여기에 통신비 내고 생활품 구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었다. 전공서적들을 구입하는 학기 초나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시기는 말할 것도 없었다. 문화생활 같은 건 고려할 여력도 없었다. 보증금으로 맡겨둬야 하는 목돈까지 헤아리니, 자취비용 전반을 내 알바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임이 명확해졌다.

게다가 자취를 알아보며 주변의 자취생들과 대화하다 보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았다. 굶이 굶이 골목진 자취방 주변의 환경 때문에 동아리나 학과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할 때에는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찬물밖에 나오지 않아 집 주인에게 알렸는데, 몇 번을 말한 뒤에야 해결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자취생을 반겨주는 건 냉기가 감도는 작은 방과 쌓인 빨래감,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같은 것들뿐이었다. 와중에도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에는 걱정하실까 하는 염려에, 잘 지내는 척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잡한 계약 절차들, 그 너머의 경제적 부담들, 그리고 그 너머 혼자 살며 겪는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말로만 들던 세상물정, 정말 이렇게 배우는 건가 싶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지만 지평선 하나 찾아보기 힘든 이 도시에서의 삶이 팍팍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20대가 되니 내 두 다리 편히 뻗고 쉴 공간 확보하는 일이 이렇게 힘에 부쳤다. 대학이라는 울타리조차 벗어나는 건 더 낫고 무거운 ‘홀로서기’의 유형들로 나를 짓누를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결국 자취를 포기했다.

최근 행복기숙사 출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통학이나 자취를 하던 학우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말에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면서도, 지난 가을에 자취를 알아보다 속앓이 했던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사무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청춘들의 현실이 이렇게 고만고만한데,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펜을 내린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기획

국제캠은 쏙 빠진 자회사, 미완의 퍼즐은 맞춰질까

숙제 남은 ‘청소’ 직고용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scene 1. 경희대학교 자회사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청소노동자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로 계산해 주십시오. 월급제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백영란 분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학교 자회사 대표로 참여한 케이에코텍 조진원 대표가 나섰다. “학교 사정도 고려해주시죠. 호봉제 도입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백 분회장의 얼굴은 밝았다. “그래도 소통 과정이 예전보다는 원활해졌어요.”

#scene 2. 용역업체 대표와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국제캠퍼스(국제캠) 지부 심규갑 지부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시급 인상해 주십시오.” 심규갑 지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역업체 두레시닝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희가 학교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런데 학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협상도 학교와 용역업체가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심규갑 지부장의 얼굴은 어둡다. “협상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학교가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어떡합니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양 캠퍼스의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법적 사용자가 다른 간접고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간접고용과 직고용이 무엇이기에 청소노동자들은 그 토록 ‘직고용’을 원하는 것일까.

‘간접고용’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이다. 2011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다가 흥의대로부터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회혁신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임주환 변호사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계약을 매년 다시 한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일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투명 인간’ 같은 존재다.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는 학교와 같은 원청에게 보이지 않는



“서울, 청소노동자 직고용했지만 국제는 배제된 반쪽 해결책
고용·임금·소속감 문제는 여전히



다. 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학교는 책임에서 자유롭다.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 ‘불법도급’이 돼 버린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입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를 불러 사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것 밖에는 없다. 법적 책임이 없으니 그들이 처한 부당한 사태를 외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노동자에게서 ‘희망’을 뺏어버린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 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한다고 하지만 근속년수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쪽자리 승계다. 통상 2년 단위로 새로 계약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근속년수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속년수 미적용은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임금인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루 8시간 동안 학교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소속은 학교가 아니다. 구청원을 위해 일하지만 여전히 ‘타인’인 것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계약 시기가 되면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약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용역회사라는 이중 구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노동자들의 소속감을 낮추고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공감한 우리학교

는 2013년 ‘미화용역직 고용형태 개선연구 TF’를 시작으로 2015년 희망제작소와의 MOU 협정을 거쳐, 최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까지 이뤄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대학 중 최초로 ‘자회사’를 세우면서까지 직고용을 했다는 것은 학교의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가 확실한 것을 의미 한다”며 “원청 사용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을 학교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서울캠의 직고용 사례가 찬사를 받는 동안 국제캠은 직고용 논의의 밖에 있었다.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던 관리체계이다.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각 캠퍼스의 사정에 따라 운영된다. 하나의 체제로 운영되기 힘들어 업무가 통합되지 못한다. 행·재정혁신지원단 이용성 행정과장은 “작년 거버넌스 개편 때 양 캠퍼스 관리팀 또한 통합에 대해 검토했지만 캠퍼스가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특징 뿐만 아니라 시설의 경우 캠퍼스 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체계 통합이 어려움을 밝혔다. 국제캠 총무팀 박수인 계장 역시 “자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캠퍼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다. 지난 9월 1일자로 기존 국제캠 청소용역업체 두레시닝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다

른 용역업체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끝나는 2년 동안은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소속을 바꾸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캠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용역업체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현재 계약이 끝나는 2년 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새로 출범한 자회사의 안정화 문제이다. 부산대, 전남대 등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학교들은 청소노동자들을 학교에 직고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반면 우리학교는 대학최초로 자회사를 도입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모델이 없다. 때문에 우리학교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회사 케이에코텍 조진원 대표는 “가깝게는 근로조건 개선부터 멀게는 대학과 자회사 경영진, 청소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임금인상을 잘 끝내야 국제캠까지 직고용을 넓힐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학교와 비슷한 모델은 있다. 2013년 서울메트로공사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환경’을 100% 출자로 설립했다. 서울메트로공사(현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1~4호선 140개 역사가 모두 현장이지만 ㈜서울메트로환경 안규엽 본부장은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팀장 1명 당 2개 역, 60명의 청소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안 본부장은 “현장 관리에서 지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방법을 강구해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회사 직고용으로 전환할 당시 기존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남아 있었던 점도 우리학교와 유사하다. 1~4호선의 미화직은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고용 전환이 가능했지만, 5~8호선 미화직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 안 본부장은 “만약 5~8호선 청소노동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직고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캠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으로 전환되던 7월 1일 당시, 국제캠 또한 용역업체와 계약이 두 달 남짓 남아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도 이들의 고용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8.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화)	18.1.15(월)~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8.2.9(금)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의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우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병무청 배정인원 내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전공 오픈랩

9.23(토) 12:00~17:00
DGIST 컨실리언스홀 L29(대강당)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 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버리 지점 및 간단한 음식, 기념품 제공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홍보센터(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